정의와 평화를 위한 상호 종교간 연계, 인도, 파트나 관구

2019 년 11 월, 메리 스리자 수녀는 관구의 장기 계획수립을 촉진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은 사명을 행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중요한 협력 양식을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상호 종교간 연계"라 명명했습니다.

성모 승천 관구의 관구장인 메리 테씨 수녀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핵심 멤버는 란자나 나우마니, 테쥬라시 메로트라, 메리 쇼바나 수녀, 메리 푸니타 수녀, 메리 죠티샤 수녀입니다. 첫 회의에서 메리 테씨 수녀는 이 그룹을 가리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라는 의미의 "마나브 바브"라 묘사했습니다.

로고: 한 분이신 하느님, 한 사랑, 하나의 세상, 한 인류
(우리는 형제, 자매이며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모토: "한 비전, 한 사명, 한 마음, 한 희망"

비전: 모든 이가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그 존엄성이 인정되는 포함적인 인간 공동체의 건설
사명: 소외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 특히 이웃과 사회에서 극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희망: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격려하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른 신앙, 믿음, 가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자이크이지만 중심 가치는 섭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 형제적 사랑, 정의와 평화, 자유, 해방, 평등, 화해, 용서, 정직, 참됨, 비폭력, 온유함, 다양성 안의 일치입니다.

우리의 연계: 형제적 사랑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을 위한 박애의 주방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큰 봉사의 소박한 시작입니다.

그룹 구성원들은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메리 푸니타 수녀가 도움을 받을만한 가정을 찾아내고, 각 팀 구성원들은 매우 관대하게도 그 가정들에게 주말 식사를 제공할 책임을 자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대한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며 그분께 우리 관구를 맡겨 드립니다.